

꺾이지 않는 3푼...서민가계 '휘청'

(고유가·고금리·고물가)

공공요금 인상등 연초들어 더욱 악화

"당국 특단의 대책 서둘러 내놓아야"

작년부터 이어진 고유가·고유가·고금리 등 3(高) 현상이 연초에 더욱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 지속적이거나 국내의 경제나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당분간 내려오지 않을 전망이다. 어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계속 팍팍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공요금 인상 줄이어=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식품업계는 벌써 과자류와 유제품 가격을 10~30% 올리고 있고,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비싸졌다. 주요 피자업체들도 최근 일제히 1천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공공요금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광주시가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천시 등도 1~2월중 7~30%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부 차관을 반장으

로 한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나는 기름값 가는 정책=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찍은 해외시장은 고사하고 국내 도입원유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으면서 진행되는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허리가 된다'는 표현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전국 휘발유 소매가격 평균치는 1월 첫째주에 ㄹ 당 1천638.58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유값도 1천442.77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치였다. 일선 주유소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휘발유 판매가격을 ㄹ 당 1천900원 이상으로 표시하는 곳이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아직 전무하다.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가 조속히 유류세금 10%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지만 탄력세를 적용 등 가격급등을 흡수할 수 있는 조처들은 아직 가시권에 들지도 않은 상태.

◇대출금리 급등세...서민 당혹=대출금리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민가계에 고통을 더하고 있다.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두달째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정금리부 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등 대출금리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될 태세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위험 헤지상품 개발 등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설 차례상 비용 15만원

지난해보다 3.7% 올라

농협 하나로클럽·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작년 설의 14만5천70원보다 3.7% 오른 15만490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채소류는 감자와 무·배추 등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0~60%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고 고사리(11.5% 상승), 숙주(11.3%), 깐도라지(5.9%) 등 나물류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농협유통은 설명했다.

수산물도 명태 수입량 감소와 어획량 부진 등으로 황태가 1마리에 4천490원으로 10.6%, 참가자미가 9천500원으로 18.8%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과일류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당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10~30%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 저장이 어려운 배의 경우 설 무렵에 집중적으로 출하되면서 5개에 9천9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사과도 9.4% 가량 값이 하락하겠다고 농협유통은 전했다.

이밖에 육류도 한우와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공급량이 늘어난 데다 수입육 유통에 따른 여파로 작년보다 가격이 5~10% 내려갈 것으로 농협유통은 내다봤다.

창업 소상공인 상당수 '경영난'

중기청, 7,039곳 조사...대부분이 매출·순익 감소 '허덕'

광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2,400억원 상반기 지원

소상공인 창업의 대부분이 생계 목적이었으며 상당수가 고객과 매출, 순이익이 예년에 비해 감소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0일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 7천3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창업 동기로 '생계유지 목적'(7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창업했다는 이는 16.4%였고,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2.1%에 불과했다.

창업 준비 기간은 대부분 3개월 미만(45.8%)이었고, 평균 준비기간은 8개월로 조사됐다.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5천762만원이고, 이중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69.2%이었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전년 대비해 고객(70.8%)과 매출(73.0%), 순이익(75.3%) 등이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이하인 소상공인이 62.3%였으며, 월 순이익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20만5천원)에도 못 미치는 업체

가 30% 가량에 달했다.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주변 소용업체간 경쟁심화'(4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36.8%), '대형업체의 출현'(29.4%) 등을 지적한 이도 많았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정책 자금 용자규모를 2천4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1월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하반기(7월1일~자금 소진시까지)로 나눠 신청 받아 지원키로 했다.

문의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하남·남부·북부), 대표번호(1588-5302).

금호, 中 물류 인프라 구축

텐진공항과 투자협약 체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물류전문기업인 한국복합물류(대표이사·김종호)가 중국 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한국복합물류는 최근 중국 텐진에서 텐진공항 국제물류구와 공항 인프라시설 투자관련 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물류는 텐진공항국제물류구내에 최대 5만㎡의 부지를 확보해 항공화물의 보관·포장·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등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 해외 첫 물류법인인 설립한데 이어 글로벌 물류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복합물류는 국가거점 물류시설인 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해온 업체로 지난 2005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3차 물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고 2006년 말 건교부로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기아차, 스포츠마케팅 강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행사 차량 81대 지원

기아차가 오는 14일로 다가온 '2008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테니스 스포츠마케팅에 들어간다.

기아차는 10일 호주오픈이 열리는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차 호주판매법인장 이수길 상무, 호주오픈조직위원회 제프 플라드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카니발·쏘렌토·로체 등 81대의 운영차량을 전달했다. (사진)

이 차량들은 14~27일 2주간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호주오픈 기간동안 참가 선수단, 경기 관계자, 미디어 관계자, VIP 등을 위한 대회 행사용으로 사용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7년간 메이저 스포츠 자적으로 세계 4대 그랜

드슬램 테니스대회 중 하나인 호주오픈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후원, 5억3천만 달러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 모닝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

기아자동차의 소형 승용차 '모닝'을 모는 운전자는 오는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이에 따라 1천cc 미만의 경차의 경우 서울~부산은 9천50원, 서울~목포는 8천원, 서울~서대구는 6천원만 내면 된다.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교육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지난 9일 본부 회의실에서 광산구내 농업인 250여명을 회의실로 초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설명회 등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여천NCC 한화·대림측 갈등 여전

소송사태 해결 기미 안보여

여천NCC 대주주인 대림과 한화간 갈등이 겉으로 불거진 지 두달이 지났고, 그 사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경영에 복귀했지만 아직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천NCC 이병호 사장은 1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저쪽(한화)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쪽(대림)에서 뭘 할 수 있겠냐"라면서 내분이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화측에서 인사와 관련해 항의하는 대림측 직원들을 고소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 대림

측이라고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림산업 한주희 사장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으며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만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소송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석화 허원준 사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유구무언이다"라고 언급했다.

여천NCC 내분은 지난해 11월 초 한화측인 이신호 여천NCC 부사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림측 경영진의 무능으로 회사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대림이 지분을 넘기면 한화에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11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를 선정, 수입물품 검사와 관세관련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세관은 이날 또 세관직원과 관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세관 선포식을 갖는다. 한편 관세세관은 지난해 관세청이 전국 49개 세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측정에서 본부세관 단위 1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부패발생 ZERO' 실현으로 본부세관 최초로 '청렴세관 인증'의 영예를 안았다.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부채표 가스할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할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할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신약,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석,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저도 가스할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겉되고 뒤편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할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할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할명수큐